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관광경영학과	이름	김*영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파견기간	18.02.28-6월 중순
귀국여부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스카이트레인이라는 대중교통을 타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버스로 49번 버스를 타면 바로 앞에서 내리기 때문에 위치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아시아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캐나다인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들 수도 있습니다. 규모는 빌딩 4-5개 정도 있고 우리학교 오광처럼 가운데 잔디가 있어 사람들이 가끔 누워있기도 합니다.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이며 학교 내는 금연구역입니다!</p>
2018-1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저희는 전공수업이 아니라 어학수업(LEAP)을 듣기 때문에 수업 전날에 레벨테스트를 봅니다. 그걸로 반이 베이직부터 8까지 나뉘는데 보통 우리학교 학생들은 LEAP 3,4 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리스닝,라이팅,리딩 위주이며 스피킹은 그냥 수업시간에 주제에 대해 의견나누는 시간 뿐입니다. 혹시나 스피킹 위주로 배울거라 생각하신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아시아인이고 특히 중국,베트남 친구들이 많아서 쉬는시간에는 그냥 내가 중국에 온건지, 캐나다에 온건지 모를정도로 중국어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정말 늘리시려면 다른 액티비티에 참여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거예요! 거의 매주 어세스먼트라는 평가를 세 과목 모두 보고 항상 파이널은 수업 마지막 날에 치룹니다. LEAP 3의 경우는 숙제로 저희학교</p>

	<p>대학영어에서 배우는 조그만 영어책 같은 걸 한 3권정도 사라고 하는데 도서관에서 빌리실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반 친구랑 쉼어하셔도 되요 책을 다시 쓸 것도 아닌데 은근 비쌉니다. 그리고 매일 숙제가 있어서 조금 지치실 수도 있어요..</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은 레벨테스트 후 반이 나오고 바로 진행합니다. 학교랑 LEAP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설명해드립니다. 또 유학생들을 위한 International office 가 따로 있어서 이 곳에서 많은 활동들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i-café 라는 액티비티를 저는 빠짐없이 참여했는데요, 이 곳에서 다과를 먹으며 간단한 활동을 합니다. i-explore 나 i-lunch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내용을 보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학교 클럽도 있으니 본인이 원하시는 거 찾아서 직접 가입하면 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3,4월은 정말 비가 계속왔고 추워서 후드티 하나로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5월은 여름처럼 갑자기 더워져서 반팔티도 조금 챙기시고 오히려 6월에 다시 조금 추워졌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차이나타운쪽은 위험하니까 밤에는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그 외 밴쿠버는 워낙 안전한 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마세요. 홈리스들도 그냥 지나치시면되요</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0) 외부 숙소(0)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필리핀 가정으로 홈스테이 배정을 받았는데 우선 그 집에 저 말고 다른 일본학생이 있었고 그 외에 그 엄마의 친구 2명과 가족 3명 총 7명이 살았는데 화장실은 1개였고요 제가 부탁한 물이나, 사소한 것들인데 그것들은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가족들 먹을 건 따로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830달러를 냈는데 그에 합당한 홈스테이를 하지 못했다고 느낀 점은 저의 점심 도시락이나 저녁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99센트 짜리 면만 매일 줬고 가끔은 kfc 치킨 한 조각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닌 거 같아서 5월에 친구랑 같이 다운타운에서 룸쉐어로 1달 반 가량 살았습니다. 룸쉐어가 훨씬 싸고 스트레스도 안받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리핀 가정이었기 때문에 홈스테이에서 영어가 늘 기회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필리핀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더 없었습니다. 홈스테이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야합니다. 캐나디언이 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기대는 하지 마세요! 대부분 인도나 필리핀 가정입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0) 외부식당 (0) 직접 요리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 때는 홈스테이에서 저녁에 먹은 레프트오버를 런치로 먹었는데 대부분 부실했기 때문에 이부분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외 룸쉐어때는 친구랑 가끔 만들어 먹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벤쿠버 대중교통인 스카이트레인과 버스를 이용해서 다운타운 학교 모든 곳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10만원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5-6만원	트래블로버라는 곳에서 제일 저렴한 상품으로 했습니다.
숙소	룸쉐어-960\$	두달 치, 홈스테이는 미리 두달치 지불
식비		
교통비	먼슬리패스-93\$*2	한달은 걸어다녔음
책값		
여행	150만원 이상	
기타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봄날씨라고 해서 한국처럼 선선하지 않고 추울 때니 후드티나 후드집업 같은 거는 조금
챙기고 반팔도 몇 장 챙겨가세요. 그리고 비가 두달 내내 오니까 우산은 가서 사시던지
아니면 미니우산 들고 가세요. 그리고 한국인도 많고 아시아인도 많아서 캐나다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 수도 있지만 영어가 늘고 싶으시다면 meet up 이라는 액티비티
해보세요! 유심은 한국에서 미리사가셔도 좋지만 현지통신사가서 하는 것도 저렴해서 그
방법도 추천드리고요 공책은 굳이 안가져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구류가 질이
더 좋긴 하지만 학교에서 사라고 하는 공책이 있어서 그거 쓰시면 되고 4개월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자격증이나 단어장 같은 책 가져가셔서 학교 끝나고
공부하시면 알찬 4개월을 보내실 거예요 오전반이 되면 생각외로 시간이 너무 남아서
맨날 학교 끝나고 먹고 자고 하게 되더라고요.. 보험은 굳이 안들어도 된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깐 제일 싼거로 드세요! 캐나다는 병원비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저도
눈병났는데 병원 못가고 5일동안 자연치유했어요 그리고 홈스테이 선물 같은거 간단히
준비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3주 어학연수로 랑가라컬리지에 오고 그 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다시 찾게 되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교환학생으로서 온 건 제가 알아서 다해야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점도 있었고 저번에 왔을 때 홈스테이 가족이 너무 좋아서 이번 홈스테이도 좋을 거라 기대했는데 전혀 아니여서 실망도 컸고요. 하지만 눈 뜨면 보이는 산과 자연 덕분에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업은 한국에서 영어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서 지루했지만 세션이 끝나고 주어지는 베케이션때 친구랑 미국서부, 캐나다동부, 뉴욕 여행간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언제 갈 지 모르니 이런 기회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나라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과 친해진 게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출국하는 날 홈스테이때 제 룸메였던 일본인 친구가 저를 배웅해주러 공항에 몰래 왔는데 그 때 정말 감동이였습니다. 외국가면 귀랑 입은 트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년은 너무 길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좋은 기회 있을 때 한 번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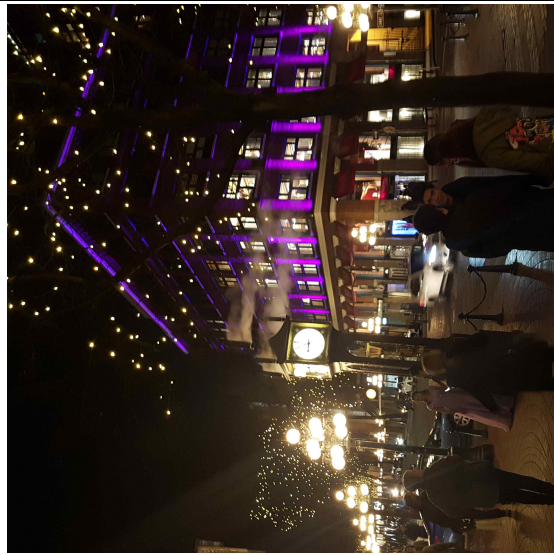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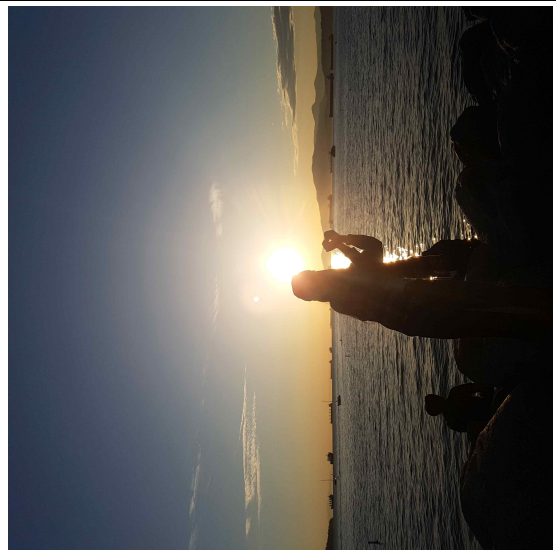
교내 오광 같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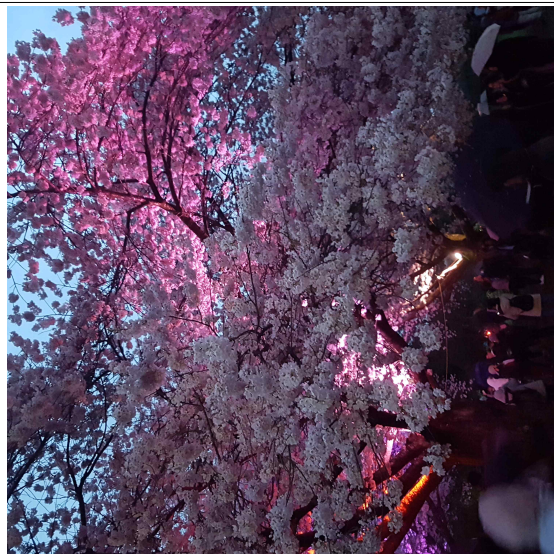
인도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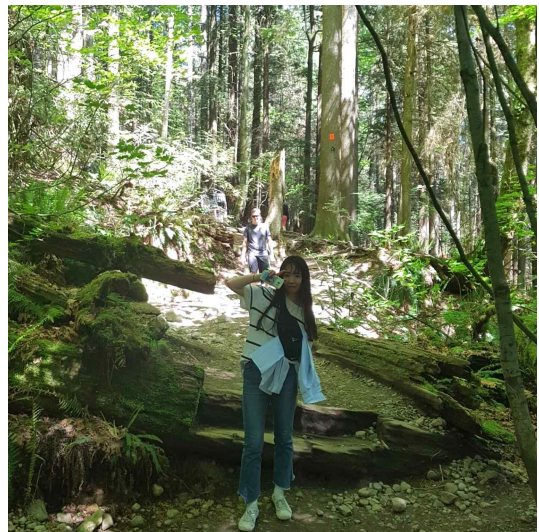
Gas town



English bay sunset



Spring lights 벚꽃 축제



Deep cove-Quarry rock
하이킹은 편한 복장으로,,